

동남아시아 언어의 모음체계 보편성 연구 - 타갈로그어, 말레이어, 타이어를 대상으로 -^{**}

허 용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초록

동남아시아 언어들은 모음체계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연언어 모음체계의 보편성을 논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7개의 동남아시아 국어 또는 공식어 중 우선적으로 그 체계가 비교적 단순한 타갈로그어, 말레이어, 타이어의 3개 언어를 대상으로 모음체계의 보편성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모음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9개 언어의 분절음을 구축한 SPAP(Stanford Phonology Archive Project)나 451개 언어의 분절음을 구축한 UPSID(UCLA Phonological Segment Inventory Database)와 같은 대규모 말뭉치를 이용하여 모음체계의 보편성을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그 연구들에 제시된 6가지의 보편성 분석 기준을 위 세 언어의 모음 체계에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6가지 기준은 유형적 보편성에 속하는 ① 모음 수(또는 모음 목록 크기)와 ② 단계성에 따른 모음 구성의 두 가지, 그리고 음성적 보편성이라 할 수 있는 ③ 저설성 ④ 균형성과 대칭성 ⑤ 전설성 ⑥ 원순성의 네 가지이다. 그리고 위의 세 언어에 이 6가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보편성을 판별하는 또 다른 기준인 기술적 보편성과 분석적 보편성의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분석하였다.

논의의 결과 분석적 보편성의 관점에서는 세 언어 모두 6가지 기준에서 '높음' 단계의 보편성을 보이지만 기술적 보편성에서는 타갈로그 어는 모음 수와 단계성에 따른 모음 구성, 그리고 저설성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성이 낮으며, 타이어는 균형성은 다른 두 언어와 마찬가지로 높은 보편성을 보이지만 대칭성에 있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5934).

**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어서는 ‘보통’ 단계의 보편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말레이어는 모든 기준에서 ‘높음’ 단계의 보편성을 보이는 매우 안정적인 모음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동남아시아 언어, 타갈로그어, 말레이어, 타이어, 모음체계, 기술적 보편성, 분석적 보편성, 모음체계 보편성 평가 모형

1. 들어가는 말

자연언어 모음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모음들 사이에는 보편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몇몇의 모음은 다른 모음보다 더 많은 언어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본 3모음 또는 5모음이라 불리는 /a i u (e o)는 다른 모음에 비해 훨씬 많은 언어에 나타난다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이러한 음운적 사실과 관련하여 모음 간에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날까 또는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이 음운론 연구자들이 밝혀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면, 이와 같은 보편성을 바탕으로 개별 언어 모음체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 역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 작업을 통해 자연언어 모음체계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작업에 속하는 것으로, 동남아시아 언어들의 모음체계를 보편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¹⁾ 동남아시아 11개 나라의 국어 또는 공식어 중 동남아시아어로 분류할 수

1)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https://www.ethnologue.com/>)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1,500개 정도로 전 세계 언어의 20%를 넘고 아시아 지역 언어의 60%를 넘어(Lewis 2009: 323ff.; Simons & Fennig 2017), 자연언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모음체계는 세계의 어떤 언어들보다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다(Goddard 2005: 11). 예를 들어, Khmer의 모음 수는 이중모음을 포함하여 27개(Diffloth 1992: 273) 또는 28개(Minegishi 2009: 598ff.)로 파악되고 있으며, Central Vietnamese에 속하는 Bru의 경우 모든 모음을 다 합치면 68개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모음목록으로 기록되고 있어(Diffloth & Zide 1992: 104), 자연언어 모음 구성의 본질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있는 언어로는 7개가 있다.²⁾ 이 7개 언어의 모음체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1차 모음(또는 일반모음)만으로 구성된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장모음과 비모음 등 2차 모음도 포함하는 언어들로 전자보다 조금 더 복잡한 체계를 가진 언어들이다. 타갈로그어, 말레이어, 타이어, 라오어의 4개 언어가 전자에 속하며, 나머지 크메르어(장모음 포함), 버마어(비모음 포함), 베트남어(장모음 포함)의 세 언어가 후자에 속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 중 라오어를 제외한 세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³⁾

Hyman(2008: 83)에 따르면 음운체계의 보편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당 분절음을 음성적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기술적 보편성(descriptive universals)이고, 다른 하나는 음운적 관점 또는 인식적 관점으로 재해석 또는 재분석하는 분석적 보편성(analytic universals)이다.⁴⁾ 예를 들어, 수백 개의 언어를 바탕으로 분절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UPSID(UCLA Phonological Segment Inventory Database)⁵⁾에는 고모음(/i u ɪ o/

2)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11개 나라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있으며, 7개 언어로는 크메르어, 말레이어, 라오어, 버마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가 있다. 이 지역의 국어 또는 공식어 중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언어는 중국어(싱가포르), 포르투갈어(동티모르)이다. 동티모르의 경우 테툼어(Tetum)도 공식어로 사용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각각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자료(예: Maddieson 1984: 339; 안영호·전태현 2003: 1077ff.; Goddard 2005: 149)에서 말레이어라는 하나의 언어로 다루고 있다. 브루나이의 경우도 영어와 함께 말레이어를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다.

3) 라오어를 본 연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 언어의 모음체계가 비록 1차 모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논의의 내용이 2차 모음을 가진 세 언어와도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이어는 장모음을 가지고 있어 2차 모음을 가진 언어로 분류하여야 할 것 같지만 타이어 장모음은 단모음과 음질이 동일하기 때문에(Hudak 1990: 761), UPSID(아래 참조)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2차 모음으로서의 장모음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Maddieson 1984: 128). 다시 말해 장음성으로 인해 음가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장모음을 인정하고, 타이어나 한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모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술적 보편성과 보편적 보편성의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과 유사하게 ‘통계적 보편성(statistical universals)’이라고 할 수 있는 ‘Greenberg식 보편성(Greenbergian Universals)’과 그와 대립하는 ‘Chomsky식 보편성(Chomskyan Universals)’도 있다(Payne 1994: 4847ff.).

5) UPSID는 Maddieson(1984)에서는 317개 언어의 분절음 목록을 구축하였고,

등)이 없는 대신 중모음(/e o 'e' o/ 등)을 가진 언어가 4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기술적 보편성에 의한 ‘기술(description)’(cf. 1a)과 분석적 보편성에 의한 ‘분석(analysis)’(cf. 1b)은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제시될 것이다.

- (1) a. “고모음이 없는 언어가 있다.”
 b. “고모음이 없는 경우의 중모음은 고모음과 같다.”⁶⁾

이 두 가지 접근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 보편성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연언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작은 차이조차 다른 것으로 구별함으로써 혹시 숨겨져 있을지 모를 인간 언어의 공통된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는 반면, 분석적 보편성은 기술적 보편성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연언어의 본질적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바⁷⁾ 그 구체적인 것은 내용의 전개에 따라 다루도록 한다.

모음체계 분석과 관련하여 또 하나 미리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분석 기준(또는 대상)이다. 즉, 개별 언어 모음체계의 보편성의 정도 또는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 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특정 모음의 유무가 관심의 대상이 되겠지만 자연언어 모음체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준을 본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Crothers(1978), Schwartz *et al.*(1997a), Hyman(2008) 등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Hyman(2008)은 모

Maddieson & Precoda(1990)에서는 451개 언어로 확장되었다. 이들은 각각 UPSID₃₁₇, UPSID₄₅₁로 표기된다.

- 6)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중모음은 ‘고모음 vs. 저모음’의 대립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3단 대립 이상의 경우에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혀의 높이가 두 개만 있을 경우에는 음성적으로 실제 높이가 어디에 있던 Sapir(1949[1933])가 말한, ‘심리적 실체 또는 인지적 실체(psychological reality)’로 존재하는 음소의 관점에서 보면 ‘고모음 vs. 저모음’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7) 두 가지 모두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자연언어의 보편성 평가에 더 적합한지를 보기 위함도 있다.

음과 관련된 보편성의 기준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본 연구와 관련되는 것은 ① 혀의 높이(즉, 저설성)에 따른 보편성, ② 전설성에 따른 보편성, ③ 후설성에 따른 보편성, ④ 원순성에 따른 보편성의 4가지이다. 한편, Hyman에 앞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모음체계의 보편성에 대해 연구한 Crothers(1978)와 Schwartz *et al.*(1997a)은 모음체계 유형(예: 3모음체계, 5모음체계 등)에 따른 모음 구성에 초점을 두었다.⁸⁾ 허용(2017)에서는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고, Schwartz *et al.*(1997a)와 허용(2015b, 2016)에서 논의한 균형성과 대칭성을 더하여 아래와 같은 6가지를 보편성 분석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⁹⁾

(2) 자연언어 모음의 보편성 분석 기준

영역	내용
유형적 보편성	① 모음 수
	② 단계성에 따른 모음 구성
음성적 보편성	③ 저설성
	④ 균형성과 대칭성
	⑤ 전설성
	⑥ 원순성

이제 이를 바탕으로 3개 언어의 모음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¹⁰⁾ 이 연구

- 8) Crothers(1978)와 Schwartz *et al.*(1997a)는 각각 209개 언어(Stanford Phonology Archiving Project)와 317개 언어(UPSID₃₁₇, Maddieson 1984)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말소리뭉치를 분석하여 모음 수에 따른 유형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 또는 분석한 것으로, 개별 언어들 간의 음운체계의 보편성 정도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Hyman(2008)도 대규모 말소리뭉치(UPSID₄₅₁)를 대상으로 한 점은 위의 두 연구와 같으나, 개별 언어의 분절음들을 일일이 살펴보기보다는 어디까지가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 ‘모든 모음체계는 최소 하나 이상의 후설모음을 갖는다(Every phonological system has at least one back vowel.)’와 같은 절대적 보편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9) 이 6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전개해 나가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인 바, 이 분석 기준이 과연 자연언어 보편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실제성을 갖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 역시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 1차 모음만 가진,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언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10) 각 언어의 모음체계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UPSID에 제시된 것들을 기본으로 하며 문헌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언급

에서의 모음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1차 모음(primary vowels, 또는 일반모음(normal vowel))으로 한정한다.¹¹⁾

II. 타갈로그어, 말레이어, 타이어의 모음체계

1. 모음체계

1-1. 타갈로그어

타갈로그어에는 아래와 같이 두 종류의 모음체계가 있다.

(3) a. 타갈로그어 모음체계 (1)(UPSID₃₁₇)

구분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HH)					
고저모음(LH)	i				u
중모음(MM)			'ə'		
저모음(LL)					

b. 타갈로그어 모음체계 (2)(UPSID₄₅₁)

구분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HH)					
고저모음(LH)	i				u
중모음(MM)	'e'				'o'
저모음(LL)			a		

하도록 한다.

11) 여기서 말하는 1차 모음 또는 일반모음이란 이중모음이 아니라는 의미와 함께 비음성이나 장음성 등의 추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3가지의 모음분류기준(혀의 높이, 혀의 앞뒤 위치, 입술모양)만으로 분류되는 모음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는 Schwartz *et al.*(1997a)에서 가져온 것이다. 참고로 UPSID의 모음 분류에 의하면 모음에는 일반모음 외에 길이의 차이에 따른 장모음과 초단모음(overshort vowel), 그리고 비음성이 추가된 비모음(nasal vowel)이 있으며, 그 외에도 무성모음(voiceless vowel) 등 다양한 성격의 모음이 존재한다.

타갈로그어 두 종류의 모음체계 중 (3a)는 타갈로그어의 전통적 모음체계이고, (3b)는 스페인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 이후 스페인어의 영향을 받아 생긴 새로운 모음체계이다.¹²⁾

먼저 3모음체계의 경우를 보면, 혀의 높이로는 고모음이나 저모음 없이 2개의 고저모음(/i u/)과 하나의 중모음(/ə/), 즉 두 개의 높이로 되어 있고, 혀의 앞뒤 위치로는 전설(/i/), 중설(/ə/), 후설(/u/)에 각각 하나씩 있으며, 원순성으로는 전설과 중설에서는 평순모음, 후설에서는 원순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5모음체계의 경우를 보면, 혀의 높이로는 저모음(/a/)은 있으나 고모음은 없고, 2개의 고저모음(/i u/)과 중모음(/e 'o/)이 있어 전체 3개의 높이를 갖는다. 혀의 앞뒤 위치로는 중설모음(/a/)을 기준으로 전설(/i 'e/)과 후설(/u 'o/)에 각각 두 개씩 있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원순성으로는 전설과 중설에서는 평순모음, 후설에서는 원순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말레이어

말레이어의 모음체계는 아래와 같다.

(4) 말레이어 모음체계

구분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HH)	i				u
중고모음(HM)	e				o
중모음(MM)			ə		
저모음(LL)			a		

12) 타갈로그어의 모음체계를 (3a)로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고(Maddieson 1984), (3b)로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으며(Maddieson & Precoda 1990), 또 다르게는 Goddard(2005: 151)와 Schachter(1990: 937)와 같이 /a i u 'e 'o/의 5개의 기본모음으로 제시하는 학자도 있으며, 기본을 3모음으로 하고 /e o/를 괄호 속에 넣어 표시하는 식의 두 체계를 섞어 제시하는 학자(Crothers 1978: 138; Wolff 2006: 472)도 있음을 볼 때 타갈로그어는 현재 3모음체계에서 5모음체계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말레이어는 모두 6개의 모음으로, 혀의 높이 면에서 보면 고모음(/i u/), 중고모음(/e o/), 중모음(/ə/), 저모음(/a/)의 4개의 높이로 구성된다. 혀의 앞뒤 위치로 보면 전설(/i e/), 중설(/ə a/), 후설(/u o/) 각각 2개씩이며, 원순성으로 보면 전설과 중설의 모음은 모두 평순모음이고 후설모음은 두 모음 모두 원순모음이다.¹³⁾

1-3. 타이어

타이어의 모음체계는 아래와 같다.

(5) 타이어 모음체계

구분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HH)	i		i		u
중고모음(HM)	e		ə		o
중저모음(LM)					ɔ
저고모음(RL)	æ				
저모음(LL)			a		

모두 9개의 모음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는 혀의 높이 면에서는 세 언어 중 가장 많은 5개의 높이(고모음 /i i u/, 중고모음 /e ə o/, 중저모음 /ɔ/, 저고모음 /æ/, 저모음 /a/)로 구성되어 있으며, 혀의 앞뒤 위치로 보면 전설모음 (/i e æ/), 중설모음 3개(/i ə a/), 후설모음(/u o ɔ/)이 각각 3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순성의 관점에서 보면 앞의 두 언어와 마찬가지로 전설과 중설의 모음은 모두 평순모음인 반면 후설모음은 모두 원순모음이다.¹⁴⁾

이제 이와 같은 세 언어의 모음체계를 위에서 언급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보편성의 정도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13) 말레이 모음체계에 대한 다른 견해를 보면 모음의 위치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첫째, Prentice(1990: 917), Goddard(2005: 151), Nothofer(2006: 452)에서는 중고모음(/e o/)과 중모음(/ə/)을 동일한 하나의 높이로 제시하고 있으며, 안영호·전태현(2003: 1082)에서는 중고모음과 중모음의 높이 차이는 위의 표와 동일하지만 저모음의 위치를 중설모음 /a/ 대신 전설모음 /æ/로 제시하고 있다.

14) 타이어 모음체계에 대한 다른 견해(Hudak 1990:761; 이교충 2003: 1022; Goddard 2005: 151)를 보면 모음 수에는 변함이 없고 모두 /æ/ 대신 /e/를 설정하고 있다.

Ⅲ. 모음체계 분석

1. 유형적 보편성

1-1. 모음 수

먼저 모음 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 (6a)에 제시된, 모음 수와 관련된 UPSID₄₅₁의 통계¹⁵⁾를 보면 자연언어는 5~7개의 모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3개, 4개, 8개, 9개의 모음을 가진 언어들이 5% 이상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2개, 10개 이상)는 전체의 3%가 채 안 되는 소수의 언어에서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허용(2017: 253)에서는 (6b)와 같은 모음 보편성을 제시하였다.

(6) a. UPSID₄₅₁

모음 수	언어 수		모음 수	언어 수	
2개	2개	(0.44%)	7개	73개	(16.19%)
3개	30개	(6.65%)	8개	24개	(5.32%)
4개	41개	(9.09%)	9개	35개	(7.76%)
5개	139개	(30.82%)	10개	13개	(2.88%)
6개	86개	(19.07%)	11개+	7개	(1.55%)

b. 모음의 보편성 1 [모음 수]

보편성	높음	보통	낮음
모음 수	5~7개	3, 4, 8, 9개	2개, 10+개

이에 비추어 볼 때 6개의 모음을 가진 말레이어는 보편성이 높지만 9개의 모음을 가진 타이어는 말레이어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편성이 낮은, ‘보통’ 단계라고 하겠다. 타갈로그어의 경우는 새로운 분석인 5모음체계로 보느냐 아니면 전통적 관점의 3모음체계로 보느냐에 따라 ‘높음’과 ‘보통’과 같이 보편성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15) UPSID₄₅₁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web interface로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도 이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모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성격은 유사하지만 대상의 범위가 다른 이전의 연구와는 통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2. 모음 구성

다음으로 모음 구성에 대한 세 언어의 보편성의 정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Crothers(1978)나 Schwartz *et al.*(1997a) 등과 같이 대용량 말소리뭉치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개별 언어들 간의 음운체계의 보편성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중국어(Standard Mandarin), 세네카어(Seneca) 모두 5모음체계이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난다.

- (7) a. 스페인어: a I u e o
 b. 중국어: a i u y ə
 c. 세네카어: a i e ɔ æ

학자들은 스페인어를 5모음체계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 즉 보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는 반면, 중국어와 세네카어는 보편성이 매우 낮은 언어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스페인어와 같은 유형의 언어는 매우 많은 데 비하여, 중국어와 세네카어의 경우는 이들 각각을 제외한 다른 언어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Crothers(1978: 110)에서 이 두 유형을 고립형(isolated type)으로 분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두 언어에 나타나는 /a i (u)/는 물론이고 나머지 모음들의 대부분도 자연언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음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음체계의 보편성은 어떤 모음들로 구성되느냐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모음수에 따른 유형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한 언어의 모음체계는 모음들의 무작위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음 목록 구성 과정에서 더 나은 모음들을 선택하여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모음의 선택이란 소위 말하는 화자 입장에서 ‘발음(또는 발화)의 편이(ease of articulation)’와 청자 입장에서 ‘지각(또는 청취)의 돋들림(perceptual salience)’이라는 이율배반적(trade-offs)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최대 대립(Maximum contrast)’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점점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16) 이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 왜 모음에 따라 보편성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연언어의 모음체계에는 모음 수에 따라 그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점점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와 세네카어의 모음체계가 특이한 것은 이들 모음체계가 상대적으로 보편성이 높은 말소리들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그 모음 중에는 5모음체계와는 맞지 않는 모음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 내적(통시적 요인 포함) 또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개별 언어가 선택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점점은 언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두 언어의 경우는 그 다른 모습이 다른 언어와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음 목록의 크기, 즉 모음의 수에 따른 유형은 특정 모음체계의 보편성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용(2017: 260)에서 아래와 같은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¹⁷⁾

(8) 모음의 보편성 2 [모음 구성]¹⁸⁾

보편성 유형	높음	보통	낮음
3~4 모음	기본 3모음(a i u) 포함	-	기본 3모음 (a i u) 불포함
5~6 모음	기본 5모음(a i u 'e' 'o) 포함	기본 3모음 +기타 2모음	기본 3모음 불포함

의문과 연결이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목록 크기 원리(size principle), 자질 경제론(feature economy), 산포이론(Dispersion Theory) 등을 참고할 것.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Lindblom & Maddieson(1988), Lindblom(1989), Palosaari & Campbell(2011), Maddieson(2013), Clements(2003b&c), Liljencrants & Lindblom (1972), Lindblom(1975), Schwartz *et al.*(1997b) 등이 있다.

17) 아래 평가 모형은 여러 논의 과정(허용 2014, 2015a&b&c, 2016, 2017)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에 그 과정을 모두 기술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논의의 전개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제시하도록 한다.

18) 이 표에 제시된 P5, P7, P9은 각각 주변부 모음(Peripheral vowel)이 5개, 7개, 9개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9~10모음에 나타나는 I2와 I4는 각각 중앙부 모음(Interior vowel)이 2개와 4개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주변부 모음이란 전설평순모음과 후설원순모음, 그리고 저모음을 말하며, 중앙부 모음은 저모음을 제외한 전설원순모음, 후설평순모음, 중설모음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Schwartz *et al.*(1997a)과 허용(2017)을 참조할 것.

보편성 유형	높음	보통	낮음
7~8 모음	① P7: a i u e o ε ɔ ② P5(a i u e/ε o/ɔ) + i, 'ə'	P5+기타 2모음	P5 불포함
9~10 모음	① P9: a i u e o ε ɔ ɪ ʊ ② P7(a i u e o ε ɔ) + I2(i 'ə') ③ P5(a i u e/ε o/ɔ) + I4(i 'ə' y ø)	① P7+기타 2모음 ② P5+기타 4모음	P5 불포함

이제 각각의 언어를 이 기준에 비추어 보편성의 정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타갈로그어부터 살펴보면 3모음의 전통적 체계는 /l ʊ 'ə'/로 구성되어 있고, 5모음체계는 /a ɪ(또는 i) ʊ(또는 u) 'e' 'o'/로 구성되어 있다.

타갈로그어의 이러한 모습을 보편성이 높은 체계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l ʊ/와 /ə'/를 각각 기본 3모음인 /i u/와 /a/와 같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기술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의 모음과 후자의 모음은 당연히 다른 것이다. 기본 모음인 /i u/는 고모음인데 반하여 /l ʊ/는 고저모음이고, 기본 모음인 /a/는 저모음인데 반하여 /ə'/는 중모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본 타갈로그어의 전통적 3모음체계는 기본모음 /a i u/와는 차이가 있는, 보편성이 결여된 모음체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분석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미 앞에서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였지만, /i/와 /l/, /u/와 /ʊ/는 음성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소리이지만, 두 소리들을 다른 소리로 구별하여 인식하게 하는 지각적 차이(perceptual distinctiveness, Vaux & Samuels 2015: 574) 또는 음운적 거리(phonological distance, 허용 2017: 249)가 충분히 있다고 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소리이다.¹⁹⁾ 따라서 두 그룹의 소리 중 하나가 없을 경우에는 한 그룹의 소리가 다른 그룹의 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말소리는 음성 공간 안에서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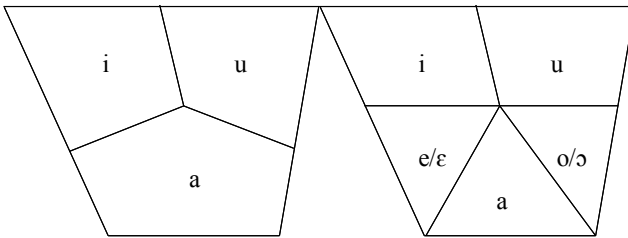
19) 지각적 차이와 음운적 거리에 대해서는 각각 Vaux & Samuels(2015: 574)와 허용(2017: 249)를 참조할 것.

림처럼 나누어진 영역(space)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즉, 아래 그림 (9a&b)에서 해당 영역 안에 있는 말소리들은 음성적 실체와 관계없이 3모음체계 언어의 화자에게는 모두 해당 영역에서 하나의 동일한 소리로 인식되는 것이다. 아래 (9c)의 표에서 진하게 칠해진 부분의 소리들이 해당 영역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소리들로 각 영역의 대표음 또는 기저음소가 된다.²⁰⁾ 그리고 언어에 따라 음성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영역 안에서의 해당 언어의 음성적 실현으로 설명하였다(허용 2017; 254ff.). 표 (8)에 있는 모든 모음은 이러한 개념에 따라 기저음소로 표현한 것이다.

(9) 모음의 영역

a. 3모음체계

b. 5모음체계



20) M영역에 하나의 모음이 있을 경우(대체로 5모음 이하)에는 진하게 칠해진 /e/와 /o/가 기저음소가 되고, 7모음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모음이 확장되는데 이때는 /e/와 /o/ 대신 세로줄이 쳐진 /e/와 /ε/, /o/와 /ɔ/가 기저모음이 된다. 이렇게 보면 자연언어에서의 기저음소는 많아도 일반모음 11개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개 또는 9개 이상의 다모음체계에서는 일반모음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장모음이나 비모음 등 2차모음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Schwartz *et al.*(1997a: 233)와 허용(2016: 603)을 참조할 것.

c. 모음 영역과 기저음소²¹⁾

구분		전설		중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H	고모음 High(HH)	i	y	i	ɥ	u	u
	고저모음 Lowered high(LH)	ɪ	ʏ	ɨ	ɥ̟	ʊ	ʊ
M	중고모음 Higher mid(HM)	e	ɘ	ø	ø	ɤ	ɘ
	중모음 Mid(MM)	'e'	'ɘ'	'ø'	'ø'	'ɤ'	'ɘ'
	중저모음 Lower mid(LM)	ɛ	œ	ɜ	ɛ	ʌ	ɔ
	저고모음 Raised low(RL)	æ		ɐ		ɑ	ɒ
L	저모음 Low(LL)	a		a		ɑ	ɒ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 관점의 타갈로그어 3모음체계도 보편성이 매우 높은 소리로 분류된다. 즉, 이 3모음은 위 (9a)에서 각각 서로 다른 세 모음영역에 들어있는 것이고, 결국 위 표 (8)에서의 기저음소 /a i u/와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수직적 또는 수평적 구성이 아닌 한 (즉, 하나의 영역 안에 두 개 이상의 말소리들이 들어 있지 않은 한), 3모음 체계는 모두가 보편성을 갖는 체계로 분류되는바, Crothers(1978: 109)의 견해도 이와 같다.

타갈로그어의 5모음체계도 마찬가지다. 이 언어의 5모음체계가 말소리 그 자체로만 본다면 보편성이 다소 낮은 구성(/a ɪ ʊ 'e' 'o')일지라도 (9b)의 5개의 음성영역에 하나씩 속하여 산포이론에서 말하는 ‘발화 공간의 최대 대립(maximal contrast in the articulatory space)’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이는 결국 (8)에서의 5~6모음체계에서의 기본 5모음을 충족시켜 높은 보편성을 갖는다고 하겠다.²²⁾

21) (9c)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후설평순고모음과 저고모음의 음운영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이 있는 영역이다. 즉, 주변부 모음인 후설원순모음(/u o/)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높이의 중앙부 모음인 후설평순모음(/ɯ ʏ/ (표기 방법에 따라서는 /i 'ə'/))을 주변부 모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저모음(/a/)이 없는 경우 저고모음(/æ/ 등)을 주변부 모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Vallée(1994), Schwartz *et al.*(1997a), 허용(2017) 등을 참조할 것.
 22) 위에서 말한 중국어와 세네카어의 경우를 보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모음들이 5개 영역에 골고루 산포되어 있지 않고 한 영역 안에 두 개의 소리가 들어감에 따라 비어 있는 공간도 존재하게 되어 보편성이 매우 낮은 유형이 된다. 결국 이들 5개 말소리는 그 자체로는 보편성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음

c. P5 + I4 유형: 5개의 주변부 모음 + 4개의 중앙부 모음

타이어는 이 중 (10b) 유형에 속하여 ‘높음’ 단계의 보편성을 갖는다 하겠다. P7의 구성도 보편성이 높지만, I2의 구성도 보편성이 높은 것이 자연 언어에서 중앙부 모음 중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것이 /i ə/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앙부 모음은 후설(또는 중설) 평순모음이 전설원순모음(/y ø/)보다 우선하는데, 그것은 전자([-전설성, -원순성])가 후자([+전설성, +원순성])보다 훨씬 무표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타갈로그어 3모음체계는 기술적 보편성의 관점에서는 보편성은 낮지만, 나머지 경우는 모두 보편성이 높은 체계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음성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이 세 언어의 보편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음성적 보편성

2-1. 저설성

모음 분류의 3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혀의 높이의 차이에 의한 저설성(openness, lowness)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설성의 관점에서 볼 때 최대 대립은 당연히 ‘고모음 vs 저모음’의 대립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중모음은 저설성에 의한 대립이 3단 이상이 될 때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특정의 언어가 ‘고모음 vs 저모음’의 대립 없이 중모음이 포함된 대립을 보인다면 이들 언어는 보편성의 면에서 매우 특이한 경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통계를 UPSID₄₅₁에서 추출해 보면 37개의 언어가 고모음(HH)이 없으며, 20개의 언어가 저모음(LL)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모음(HH)이 없는 37개(8.2%)의 언어 중 고저모음(LH)이 있는 언어가 29개(6.4%)이고, 고저모음이 없는 언어가 8개(1.7%)이다.

둘째, 저모음(LL)이 없는 20개(4.4%)의 언어 중 저고모음(RL)이 있는 언어가 9개(2%)이고, 저고모음이 없는 언어가 11개(2.4%)이다.²⁴⁾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고모음(HH)이 없는 언어와 저모음(LL)이 없는 언어 모두 보편성이 매우 낮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3a&b)에 제시된 타갈로그어가 이에 속한다. 나머지 두 언어는 이 두 높이의 모음을 모두 가지고 있어 보편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분석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면 고모음(HH)이 없는 상태에서의 고저모음(LH)은 해당 음운체계에서 고모음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허용(2017: 263)에서 제시된 저설성 관련 모음의 보편성도 이러한 관점에서 형성된 것이다(아래 (11) 참조).

(11) 모음의 보편성 3 [저설성]

보편성	높음	낮음
H영역과 L영역의 대립	유	무

위에서 언급한 고저모음을 가진 29개의 언어도 이 표에 의해서는 높음 단계의 보편성을 갖게 되는데, 타갈로그어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타갈로그어는 보편성이 높은 언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분석적 방법으로 접근하면 고모음 영역(H)이나 저모음 영역(L)에 모음이 없는 극소수의 언어만이 보편성이 없는 언어로 분류되고 거의 모든 언어가 보편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분석적 방법은 ‘(거의) 모든 언어가 높이의 대립을 갖는다.’와 같은 일반화나 절대적 보편성 또는 Chomsky식 보편성을 도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수백 개의 대상 언어 중 특정의 언어가 보편성의 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같은 Greenberg식 보편성(또는 통계적 보편성)은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2-2. 균형성과 대칭성

자연언어에서 전설과 후설의 주변부 모음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균형성이다. 즉, 양쪽의 모음의 수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으로

24) 저모음이 없는 경우에 중앙부 모음인 저고모음이 저모음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나타난다. 대체로 /a/와 같은 저모음이 하나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균형성은 얼핏 생각하기에 모음 수가 저모음을 포함하여 홀수인 경우에만 적용될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짝수인 경우에도 그러한 경향성이 나타난다. 모음 수가 홀수인 경우 약 84% 정도, 그리고 모음 수가 짝수인 경우가 약 65%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허용 2015a: 474). 이와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은 모음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부 모음이 ‘0개, 2개’와 같은 식으로 구성되고, 모음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중앙부 모음이 ‘1개, 3개’와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변부 모음의 균형성을 위한 자연언어 스스로의 음운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허용(2015a: 473)에 따르면 균형성을 갖는 언어의 경우의 약 80%가 전설과 후설의 높이가 같은 대칭적 구조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하다.²⁵⁾ 이와 같은 논리 아래 허용(2017: 265)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편성을 제시하였다.

(12) 모음의 보편성 4 [균형성과 대칭성]

보편성	높음	보통	낮음
균형성과 대칭성	균형성 + 대칭성 +	균형성 + 대칭성 -	균형성 - 대칭성 -

이제 이를 바탕으로 세 언어를 보도록 한다. 타갈로그어의 경우 3모음체계에서는 전설과 후설의 주변부 모음은 각각 하나로 둘 다 고저모음(LH)의 위치에 있으며, 5모음체계에서는 각각 두 개씩인데 모음 설정에 따라 고모음(HH) 또는 고저모음(LH), 그리고 중모음(MM)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완벽한 대칭 관계에 있어 보편성이 높다고 하겠다.

짝수(6개)의 모음을 가진 말레이어의 경우도 높은 단계의 보편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홀수의 중앙부 모음과 관련이 있다. 이 언어에서는 저모음(/a/)과 중앙부 모음(/ə/)이 각각 하나씩 있어 전설과 후설의 주변

25) 한국어 모음체계에는 전설주변부모음이 3개(/i ɛ ɯ/) 있는 반면 후설주변부모음은 2개(/ɯ ɔ/)여서 균형성과 대칭성에서 모두 어긋난다. 두 개의 전설중모음 /ɛ ɯ/ 중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균형성과 대칭성을 갖게 되는 음운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부 모음은 모두 4개가 되는데, 이들은 모두 고모음(HH)와 중고모음(HM, 기저음소의 관점에서는 중모음(MM))의 위치에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9모음체계인 타이어를 보도록 한다. 9개의 모음에서 저모음 /a/를 제외한 8개 모음의 분포를 볼 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중앙부 모음의 숫자이다. 위에서 본 대로 중앙부 모음에 2개의 모음을 분포함으로써 전설과 후설의 주변부에 각각 3개의 모음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균형성을 위한 음운적 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설과 후설의 높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3개의 높이 중 고모음(HH)과 중고모음(HM)의 두 위치는 같은데 마지막 하나가 전설에서는 저고모음(RL)로 나타나고 후설에서는 중저모음(LM)으로 나타나 대칭성을 갖지 못하여 중간 단계의 보편성을 갖는다고 하겠다.²⁶⁾ 이와 같은 균형성과 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보편성 평가 기준의 면에서 볼 때 앞에서 다룬 저설성보다는 음운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전설성

전설성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른 것으로 소위 말하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대립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모음체계의 보편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난제에 속하는 문제이다. 특별히 Hyman(2008)에서와 같이 기술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모든 언어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갖는다’와 같은 절대적 보편성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 이유는 매우 소수이지만 전설모음이 없는 언어도 있고, 기준 설정에 따라서는(일반모음으로 한정할 경우) 후설모음이 없는 언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두 모음만 가지고 있는 언어의 경우 예외 없이 전설과 후설의 구분이 없고 오로지 높이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수직적 구성을 갖는다는 사실 때문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전설성과 관련하여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Hyman(2008) 식의 보편성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²⁸⁾

26) 한편, /æ/ 대신 /ɛ/를 갖는다고 하는 견해에서는 균형성과 함께 대칭성도 갖게 된다.

27) 이럴 경우 후설모음은 모든 언어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Hyman(2008: 98)의 보편성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2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허용(2015c)를 참조할 것.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Greenberg식의 유형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설성에 나타나는 보편성의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수의 언어를 제외하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세 언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언어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모두 가지고 있어 ‘높음’ 단계의 보편성을 얻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설성과 관련된 아래의 보편성 기준(허용 2017: 267)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생긴다.

(13) 모음의 보편성 5 [전설성]

보편성	높음	낮음
전설과 후설의 대립	유	무

2-4. 원순성

원순성이란 입술 모양과 관련된 모음 자질이다. 원순성은 전설성과 맞물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잉여성을 갖는다. 그것은 Fant(1973: 186ff.)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설모음은 일차적으로 평순모음이고, 원순모음은 일차적으로 후설모음이라는 음운적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음운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평순모음은 모든 언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Hyman(2008: 98)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유형적인 관점에서의 보편성은 원순모음의 존재 여부, 그중에서도 전설원순모음의 존재에 초점을 둔다.

첫째로, UPSID₄₅₁에서는 6개 정도의 언어에 원순모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두 개의 언어에서는 장모음 /u:/가 있고, 나머지 4개의 언어에서는 /u/ 대신 /ʊ/가 존재한다. 이 4개 또는 6개의 언어로 인해 자연언어에 대한 절대적 보편성(예: 모든 언어는 원순모음을 갖는다.) 판단에 작지 않은 고민을 안겨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접근 방법이 다른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보편성의 관점에서나 분석적 보편성의 관점에서나 큰 의미가 없다. 기술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면 수백 개의 언어 중 4~6개의 소수 언어만이 예외적이며, 분석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면 후설원순모음이 없는 경우 후설평순모음이 주변부모음을 대신하기 때문에 위의 예외적인 언어들 역시 원순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설성과 원순성이 결합된 전설원순모음(/y ø/ 등)의 경우는 어느 정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소리들은 [+전설성, +원순성]이라는 두 개의 유표적 자질을 가진 매우 특이한 소리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모음의 확장 단계 중 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소리들은 UPSID₄₅₁ 중에서 31개 언어(6.87%)에만 나타난다. 물론 대형 목록의 언어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모음 수가 증가할 경우 전설원순모음보다는 장모음이나 비모음 등의 2차 모음을 통해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에서 전설원순모음을 가진 언어는 아래에서와 같이 보편성이 낮다고 하겠다.

(14) 모음의 보편성 6 [원순성]

보편성	높음	낮음
전설원순모음	무	유

위의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세 언어, 타갈로그어, 말레이어, 타이어의 모음은 높은 단계의 보편성을 갖는다.²⁹⁾

IV. 맺음말

자연언어 모음체계는 결코 아무렇게나 구성되지 않음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이다. 그 구성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히진 못하였으나 큰 틀에서 보면 청자들의 지각을 고려하면서 분절음들 사이에 최대 대립 또는 충분한 대립을 유지하려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언어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모음체계의 구성 원리를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변화 또는 진화해 왔다. 앞선 시대의 모음체계가 계통적 또는 역사적 제약(phylogenetic or historical constraints)이 되고 그 위에 모

29)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5개 모음만을 가진 중국어에 /y/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다른 모음이 아닌 유독 전설원순모음 /ɯ ɨ/가 단모음 목록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다.

음 구성 원리를 적용하여 그 다음 시대의 모음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 변화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언어들의 다양한 모음체계를 살펴보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언어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언어들의 모음체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시아 7개 언어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체계를 가진 세 언어 - 타갈로그어, 말레이어, 타이어 -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6가지 보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세 언어 모두 단순한 체계이어서 대체로 높은 보편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그 6가지 보편성 기준의 타당성도 검토하여 보아 수정의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안영호 · 전태현, 「말레이어」, 『세계주요언어』, 도서출판 역락, 2003.
- 이교충, 「타이어」, 『세계주요언어』, 도서출판 역락, 2003.
- 허 용, 「자연언어 모음체계 분석을 위한 모음간 상호관계 연구」, 『언어과학연구』 70, 언어과학회. 2014.
- _____, 「자연언어 모음체계 유형 연구」, 『언어와 언어학』 66,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15a.
- _____, 「모음체계 유형에 따른 말소리 패턴 연구: 3-7모음체계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11-2, 한국언어문화학회. 2015b.
- _____, 「자연언어 모음체계의 보편성 연구」, 『언어과학연구』 75, 언어과학회. 2015c.
- _____, 「다모음체계에 나타나는 모음 구성의 특성 연구」, 『언어와 언어학』 7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16.
- _____, 「자연언어 모음체계 보편성 평가 모형 구축 연구」, 『언어와 문화』 13-1,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 Clements, G. N., “Feature Economy as a Phonological Universal”.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 Barcelona. Spain. 2003a.
- _____, “Testing Feature Economy”.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 Barcelona. Spain. 2003b.
- Crothers, J., “Typology and Universals of Vowel System”, In J. H. Greenberg *et al.* (eds.). 93-152. 1978.
- Diffloth, G., “Khmer”,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vol. i.), ed. by W. Bright, OUP: 271-275, 1992.
- Diffloth, G. & N. Zide, “Austro-Asiatic Language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vol. ii.), ed. by W. Bright, OUP:137-142, 1992.
- Fant, G., *Speech Sounds and Feature*, MIT Press. 1973.
- Goddard, C., *The Languages of East and Southeast Asia*, OUP. 2005.
- Hudak, T. J., “Thai”, *The World’s Major Languages*, ed. by B. Comrie, OUP. 1990.

- Hyman, L. “Universals in Phonology”, *The Linguistic Review* 25: 83-137, 2008.
- Lewis, M. P. (ed.),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16th edition), Dalls; SIL International, 2009.
- Liljencrants, J. & B. Lindblom, “Numerical Simulation of Vowel Quality Systems: the Role of Perceptual Contrast”, *Language* 48(4): 839-862. 1972.
- Lindblom, B. “Explaining Phonetic Variation: A Sketch of the H and H Theory”, *Speech Production and Speech Modelling*, eds. by Hardcastle, W. J. & A. Marchal, Springer: 403-439. 1989.
- Lindblom, B. & I. Maddieson, “Phonetic Universals in Consonant Systems”, *Language, Speech, and Mind*, eds. by Hyman, L. & C. Li, Routledge: 62-78, 1988.
- Maddieson, I, *Patterns of Sounds*, CUP. 1984.
- , “Consonant Inventorie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eds. by Dryer, Matthew S. & Haspelmath, Martin, Leipzig: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2013.
<http://wals.info/chapter/1>, (검색일: 2017.08.10.)
- Maddieson, I. & K. Precoda, “Updating UPSID”, *Working Papers in Phonetics* 74: 104-111, UCLA, 1990.
- Minegishi, M., “Khmer”, *Concise Encyclopedia of Languages of the World*, ed. by Brown, K. & S. Ogilvie, Elsevier: 597-600, 2009.
- Nothofer, B., “Malay”,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nd edition), ed. by E. K. Brown, Elsevier: 450-453. 2006.
- Palosaari, N. and L. Campbell, “Structural aspects of language endangerment”. *The Cambridge Handbook of Endangered Languages*, eds. by Austin, P. K. & J. Sallabank, CUP: 100-119. 2011.
- Payne, J. R. “Universals of Language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9), eds. by R. E. Asher et. al. 4847-4850, 1994.
- Prentice, D. J. “Malay(Indonesian and Malaysian)”, *The World’s Major Languages* ed. by B. Comrie, OUP: 913-935, 1990.
- Sapir, E., “The psychological reality of phonemes”, *Selected Writing of*

- Edward Sapir*, ed. by D. Mandelbaum, 46-6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9. “La réalité psychologique des phonèmes”, *Journal de Psychologie Normale et Pathologique* 30, 247-65, 1933.
- Schachter, P. “Tagalog”, *The World’s Major Languages*, ed. by B. Comrie (ed.), OUP: 936-958, 1990.
- Schwartz, J-L., L-J. Boë, N. Vallée & C. Abry, “Major trends in vowel system inventories”, *Journal of Phonetics* 25: 233-253. 1997a.
- _____, “The Dispersion-Focalization Theory of vowel systems”, *Journal of Phonetics* 25. 255-286. 1997b.
- Simons, G. F. & C. D. Fennig (eds.).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20th edition), Dallas, Texas: SIL International, Online version: <http://www.ethnologue.com>, 2017.
- Wolff, J. U., “Tagalog”,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nd edition), ed. by E. K. Brown, Elsevier: 472-475, 2006.
- Vallée, N., “Systèmes vocaliques: de la typologie aux prédictions”, *Thèse de Doctorat en Sciences du langage*, Université Stendhal. Grenoble. 1994.
- Vaux, B. & B. Samuels, “Explaining vowel systems: dispersion theory vs natural selection”, *The Linguistic Review* 32(3): 573-599, 2015.

❖ ABSTRACT

A Study on the Vowel System Universals of
Southeast Asian Languages:
The Cases of Tagalog, Malay and Thai.

Heo, Yong

Southeast Asian languages are famous for having a large number of vowel sounds with an average of more than 20 vowel sounds in this certain language family. In addition, there are approximately 1,500 languages in this area, which accounts for approximately 20% of total languages in the world. For this reason, vowel systems of Southeast Asian languages should be explored to determine the nature of vowel structures of human natural languages. In this study, we analyze vowel systems of three languages, Tagalog, Malay and Thai, that have only primary or normal vowels and thus are relatively simple structures based on descriptive and analytic universals. We would also like to confirm if the six criteria of the tentative evaluation model taken from several previous literature is appropriate in applying analysis of vowel system universals under the method of the Greenbergian Universals or statistic universals. What we have found from this research are (i) the three languages have high level of universals with some exceptional cases such as three-vowel system of Tagalog, and (ii) some of the six criteria, together with some cases of analytic universals, are not quite suitable for understanding language-specific universals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languag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 Southeast languages, Tagalog, Malay, Thai, vowel system,
descriptive universals, analytic universals, evaluation model
for vowel system universals

- 논문접수일 : 2017. 8. 10
- 심사완료일 : 2017. 8. 31
- 게재확정일 : 2017. 9. 1

